

기성용·권창훈 나란히 결승골

번리전서 1호골…스완지 강등권 탈출 선봉
권창훈은 니스전 3-2 역전골…시즌 6호



다중 권창훈

유럽파 태극전사 기성용(29·스완지 시티)과 권창훈(24·디종)이 나란히 득점포를 가동하며 팀 승리를 책임졌다.

기성용은 11일(이하 한국 시간) 영국 스완지 리버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7~2018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번리와 홈경기에서 후반 36분 결승골을 터트려 팀의 1-0 승리를 책임졌다. 기성용의 시즌 마수골이 득점이다.

3-5-2 포메이션을 가동하며 수비에 중점을 뒀던 스완지 시티는 여러 차례 좋은 찬스를 잡았지만 결실을 맺지 못했다. 그러던 후반 36분 기성용이 아크 정면에서 볼을 잡아 수비수 1명을 따돌리며 오른발 땅볼 슈트를 시도했다.

볼은 번리의 골대 왼쪽 모서리에 정확하게 꽂혔다. 스완지 시티는 이 골을 끝까지 지켜 귀중한 승점3을 얻었다. 시즌 7승째(6무14패)를 챙기면서 순위를 끌어올려 강등권 탈출 가능성을 한층 높였다.

그러나 아직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강등권에 있는 스토크 시티(6승7무14패·승점25)에 불과 승점2를 앞설 뿐이다.

프랑스 1부 리그에서 뛰고 있는 권창훈도 올랜만에 골을 터트리며 팀의 역전승을 진두지휘했다. 권창훈은 11일 프랑스 스타드 가스트롱 제라르에서 열린 OGC 니스와의 홈경기에서 후반 25분 교체로 출전해 3-2로 역전승을 거두는 골을 책임졌다. 2-2로 맞선 후반 39분 벤자민 자노의 패스를 받아 슬라이딩 슈트로 상대 골문을 열었다.

최근 주전에서 밀리면서 출전시간이 줄어든 권창훈은 시즌 6호골을 넣으면서 다시 한 번 주전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디종은 9승4무11패로 리그 중위권에서 치열한 순위 다툼을 하고 있다.

한편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는 손흥민(26·토트넘)은 10일 아스널과의 북런던 дер비전에 선발로 출전해 70분간을 뛰었지만 공격포인트를 기록하지 못했다. 토트넘은 1-0으로 아스널을 따돌렸다. 크리스티얼 팰리스의 이청용은 11일 에버턴과의 원정 경기에 또 다시 출전선수 명단에는 포함됐지만 그라운드를 밟지 못했다. 크리스티얼 팰리스는 에버턴에 1-3으로 졌다.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스완지시티 기성용(오른쪽)이 11일(한국시간) 열린 번리와 홈경기에서 중거리 슈트로 결승골을 뽑은 뒤 동료들을 끌어안으며 기뻐하고 있다. 시즌 1호 득점을 결승골로 장식한 그는 경기 최우수선수(MOM)로 선정됐다. 스완지(영국) | AP뉴시스

자격정지 해제 정몽준, 축구계 복귀하나

재기 의지 커…스포츠 외교에 역할 기대

한국축구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꾸준히 제기된 사안이 있다. 국제 외교력 부재다. 경험이 풍부하고 인적 네트워크가 좋은 외교 전문가가 없어 주류 편입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2019년 여자월드컵 유치 경쟁 때 프랑스에게 밀린 배경에도 부족한 인적자원이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정몽준(67) 전 국제축구연맹(FIFA) 부회장이 FIFA로부터 받은 5년 자격정지 징계가 해제됐다. 스위스 로잔의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는 10일(한국시간), FIFA가 내린 5년 제재기간을 1년 3개월로 줄였다. 이에 따라 정 전 부회장 징계는 지난해 1월 7일 만료됐다. 정 전 부회장은 2015년 10월 FIFA 윤리위원



정몽준

회로부터 “2018~2022년 월드컵 유치 과정에서 영국과 투표 담합을 했고, 동료 집행위원들에게 서신을 보냈다”는 이유로 6년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후 지난해 7월 소위원회에서 5년으로 감면됐으나 이에 불복해 CAS에 제소했다. 정 전 부회장은 지난해 11월 중순 로잔을 직접 찾아 자격정지 처분의 부당함을 호소했다. 제소 2개월여 만에 잃어버렸던 명예를 되찾았다. 구체적인 향후 행보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으나 축구계는 정 전 부회장이 조속한 시일 내에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할 것으로 내다본다. 특

히 CAS 결정을 밝히며 전한 “(FIFA 징계가 나오고) 지난 4년은 명예와 자부심이 훼손된 고통의 시간이었다. FIFA가 다시 축구 팬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단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 표현에서 재기의 강한 의지가 느껴진다.

올해 굵직한 국제 이벤트가 많다. 당장 2018 러시아월드컵이 4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5월 아시아 축구연맹(AFC) 총회에서는 2023년 아시안컵 개최지가 결정된다. 전방위적인 투자와 스포스십 활동을 펼치는 중국과 경쟁해 결과를 낙관할 수 없다. AFC 회원국 투표로 결정되는 아시안컵 유치는 2030년 월드컵 유치에도 긍정적이어서 대한축구협회와 각별한 정성을 쏟고 있다.

제에서 벗어나 활동이 자유로워진 정 전 부회장의 입장과 영향력은 과거의 공과를 떠나 한국 축구계의 큰 자산이다.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골키퍼 옵션’ 더 늘리려는 독일 뢰브 감독

통신원 리포트

독일 축구대표팀 요아힘 뢰브(58)감독에게 또 하나의 옵션이 생겼다. 스벤 울라이히(29·바이에른 뮌헨)의 대표팀 승선 때문이다.

뢰브 감독은 11일(한국시간) 바이에른 뮌헨-FC 샬케04의 독일 분데스리가 22라운드 경기가 열린 알리안츠 아레나를 직접 찾았다. 상위권 두 팀의 맞대결이었고, 2018러시아월드컵을 대비해 대표급 선수들의 기량을 확인해야 했다. 또 하나의 관심사는 인타부였다. 경기 종료 후 그는 “울라이히가 바이에른 뮌헨에서 기량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뢰브

울라이히도 “대표팀 감독이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거 같다. 나는 내 경기력을 유지하고 좋은 성과를 보여주지 위해 노력할 뿐이다. 사실 나를 제외하고도 좋은 골키퍼들이 많다”고 했다. 울라이히는 이번 시즌 분데스리가 개막 전부터 꾸준히 주전으로 팀의 골문을 지키고 있다. 지난 시즌 불박이 수문장이었던 마누엘 노이어(31)의 갑작스런 부상으로 투입됐지만 22라운드까지 7번의 무실점 경기로 8번을 기록한 1위 뷔르거 로만(27·도르트문트)에

이어 2위를 달리고 있다. 노이어만큼의 평가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바이에른 뮌헨이라는 빅 클럽의 수문장으로 뛰면서 단기간 내에 급성장했다.

노이어가 회복기에 접어들었지만 뢰브 감독으로선 확실한 카드를 하나 더 가지고 싶을 것이다. 독일 대표팀에는 마르크 안드레 테어 슈테겐(25·FC바르셀로나), 케빈 트랍(27·파리 생제르맹) 등 경쟁한 골키퍼들이 있다. 뢰브 감독에게 행복한 고민일 것이다.

뢰브 감독은 이날 레온 고레츠카(23)와 막스 마이어(22·이상 샬케)의 상태로 점검했다. 그는 “고레츠카와 마이어도 어리고 좋은 선수들이다. 바이에른 뮌헨을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고 호평했다.

필름(독일) | 윤영선 통신원

남정현 기자 sss23@donga.com



11일 안양실내체육관에서 벌어진 '2017~2018 정관장 프로농구' 정규리그 5라운드 안양 KGC 인삼공사-원주 DB의 경기에서 KGC 데이비드 사이먼(오른쪽)이 DB 김성호의 마크를 뚫고 덩크슛을 내리 꽂고 있다. KGC는 4연패에서 탈출했지만 DB는 4연패의 늪에 빠졌다. 사진제공 | KBL

이재도 29점 ‘에이스 본색’…KGC 구하다

사이먼 35점·14R 골밑 뒷받침…DB 4연패 전자랜드는 KCC 2점차로 꺾고 3연승 질주

정관장프로농구 KBL 2017-2018 ‘부상병동’ KGC가 29점을 올린 가드 이재도의 맹활약으로 DB를 꺾고 4연패의 늪에서 탈출했다. 안양 KGC는 11일 안양체육관에서 열린 ‘2017~2018 정관장 프로농구’ 정규리그 5라운드 홈경기에서 원주 DB를 맞아 접전 끝에 93-91로 힘겹게 승리하며 4연패에서 탈출했다.

KGC는 이날 경기 전까지 흐름이 좋지 않았다. 수비가 무너지면서 경기력이 푹 떨어진 데다 팀의 중심 오세근과 양희종까지 부상을 당해 팀 전력에서 이탈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7위 삼성의 추격까지 견제해야 하는 위기에 몰렸다.

KGC 김승기 감독은 “전술적으로 풀어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들이 잘해주기를 바란다”며 선수들의 분발을 기대했다.

KGC 선수들은 보란 듯이 김 감독의 기대에 부응했다. 특히 이재도(29점·8어시스트·3스틸)의 활약이 빛났다. 그는 지난해 11월 트레이드를 통해 KGC로 이적하기 전까지만 해도 kt의 에이스로 활약했던 선수다. 데이비드 사

이먼, 오세근, 양희종 등 좋은 동료들을 만나면서 역할이 축소됐지만, 이날만큼은 kt 시절처럼 코트를 휘저으면서 에이스 역할을 해냈다.

과감한 돌파에 이은 레이업슛과 시원한 3점슛은 kt 시절의 모습 그대로였다. 득점뿐만 아니라 8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볼 배급까지 책임졌다. KGC는 2쿼터 중반 쿼터에 피터슨이 발목부상을 당했지만, 이재도의 활약 덕분에 공백이 전혀 느껴지지 않을 정도였다.

이재도는 팀이 89-88로 추격당한 경기 종료 24초전 결정적인 3점슛을 꽂아 넣으면서 진가를 뽐냈다. KGC는 사이먼이 35점·14리바운드를 기록하며 페인트존을 지배했으며 김승원(9점)한희원(8점), 전성현(8점) 등도 지원사격에 나섰다. 4연패에서 벗어난 KGC는 7위 삼성(21승24패)과의 격차(3경기)를 유지했다. DB는 다운테 버튼(30점·8리바운드·6어시스트)과 김주성(12점)이 사력을 다해 KGC를 턱밑까지 쫓았지만 연패를 끊는 데 실패했다. 정규리그 우승을 눈앞에 두고 속절없는 4연패다.

잠실경기에서는 삼성이 LG를 84-70으로 꺾었다. 삼성은 리바운드 싸움에서 LG에 37-25로 크게 앞서면서 승리를 챙겼다.

인천에서는 홈팀 전자랜드가 KCC를 맞아 34점·13리바운드를 기록한 브랜든 브라운을 앞세워 74-64로 승리하며 3연승을 기록했다.

안양 |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염윤아·강이슬 42점 합작…삼성생명에 고춧가루 팍팍

KEB하나銀 10승째…삼성생명 4연패



부천 KEB하나은행이 갈 길 바쁜 용인 삼성생명의 발목을 잡았다. KEB하나은행은 11일 용인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신한은행 2017~2018 여자프로농구’ 정규리그 6라운드 삼성생명과의 원정에서 42점을 합작한 염윤아(26점·5어시스트)·강이슬(16점·3어시스트)을 앞세워 82-73으로 승리했다. 5위 KEB하나은행은 10승째(20패)를 거뒀다. 3강 플레이오프(PO)에 진출하기 위해서 1승을 질질했던 4위 삼성생명(11승18패)은 4연패에 빠졌다.

삼성생명은 6경기를 남겨둔 현재 3위 신한은행(15승14패)에 4경기차로 뒤져있다. 수치상으로는 역전이 불가능하지 않지만 사실상 쉽지 않아 보인다. 신한은행과의 시즌 상대전적에서 2승4패를

마크해 열세를 확정했다. 두 팀의 실질적인 차이는 5경기라고 봐야 한다. 한 차례 맞대결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뒤집기가 만만치 않다. 6경기에서 5승을 거두고, 신한은행이 1승5패 이하의 성적을 거둬야 한다. 게다가 삼성생명은 최근에 팀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배혜율이 허리 부상으로 출전하지 못해 베스트 전력을 가동하지 못하는 바람에 연패에 빠져 있다.

경기의 분수령은 3쿼터였다. 44-41, 3점차로 앞선 채 3쿼터를 맞이한 KEB하나은행은 외국인선수 2명이 동시에 뛰는 상황에서도 염윤아가 6점을 책임졌고, 강이슬과 김단비(8점·4리바운드)가 나란히 1개의 3점슛을 터뜨려 63-52, 11점차로 달아났다. KEB하나은행은 4쿼터에도 염윤아가 혼자 14점을 몰아치며 삼성생명의 끈질긴 추격을 뿌리쳤다.

삼성생명은 엘리사 토마스가 28점, 박하나가 19점으로 분전했지만 3쿼터에 흐름을 놓친 게 뼈아팠다.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23년 전통의 중앙회원권의 명품과 신화를 바탕으로 프리미엄 무기명 회원권을 선보입니다.
전 이 다름 골프서비스 문화를 느껴보십시오.

무기명회원권 특별모집

2월 가입 특혜!
“태국 무료 골프 투어”
3박 5일

구분	플래티넘
가입금액	1억원
회원혜택	무기명 4인1팀 정회원가로 이용 주말(해약 월2회 보장년18회) 이용요금 - 1팀 그린비 20만원(1인5만원)
이용기간	3년 만기 후 보종금 100% 반환

지정계좌 : 기업은행 069-110097-01-018
예금주 : 중앙멤버스(주)
※입회금은 지정계좌에 한해서만 유효하며, 그 외에 개인 은행계좌 또는 현금 입금으로 인한 제한 사고에 대해서는 당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전화상담 02-556-7000
www.jamembers.com

영문골프장
클럽타임
예약보장

회원전용
예약실 운영

다양한
골프장 레슨

중앙레저그룹 / 중앙회원권 / 중앙멤버스